

#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방법론적 구조

김 진 (중앙대)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주요어** 플라톤, 변증술(대화논증술), 디알렉티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Topica), 대화, 논박(elenchos)

**요약문**

자신의 전 저작을 거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집필한 플라톤에게 있어 “대화”라는 “철학적 형식”의 중요성은 특별하다. 특히 플라톤 대화편의 중심위치를 차지하는 “소크라테스적 대화” - 즉 소크라테스가 주대화자로 등장하여 이끄는 대화 - 의 특징과 구조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을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플라톤 철학의 방법론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러한 플라톤 대화편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과정과 방법을 통일적인 구조 안에서 설명하고 도식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방법론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화”의 기본적인 요소인 “질문”과 “대답”의 형식에 주목하여 각각의 요소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갖는 특징 및 이에 따른 대화편 해석의 유의점을 밝히고 대화편 내에서의 구체적인 질문의 형식 그리고 대답의 형식을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 중 “논박적 대화”가 플라톤에 있어서 전형적인 대화의 유형임을 밝히며 이러한 논박적 대화의 형식 및 진행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8권에 입각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 시에 현대 플라톤 연구자인 블래스토스(Vlastos)의 논박의 구조가 함께 논의되고 비교되며 최종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나는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과정을 도식화하는 형식이 제시된다.

## 1. 들어가는 말<sup>1)</sup>

자신의 전 저작을 -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플라톤의 것으로 추정되는 『제7서한』을 제외하고는 - 모두 “대화”의 형식으로 저술한 플라톤에게 있어 “대화”라는 형식의 중요성은 특별하다. 비극작가의 꿈을 접고 철학자의 길을 걷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sup>2)</sup> 소크라테스의 철학하는 방법이 바로 “대화”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생전에 또는 사후에 쓰여진 수많은 소크라테스적 저술들이<sup>3)</sup> 보여주는 소크라테스의 대화하는 방식과 방법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기본적인 철학의 방법이 “대화”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편의 저서도 남기지 않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대화의 방법”이 어떠한지는 상기(上記)한 “소크라테스적 저술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을 뿐 그것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사적 소크라테스” 연구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소크라테스”가

- 
- 1) 본 논문은 2007년 2월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서양고전철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플라톤 대화편에 있어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방법론적 구조와 대화논증술(dialektik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투고 후 익명의 심사위원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형식적 특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Topica)』 8권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론적 틀을 개별적인 플라톤 대화편의 분석에 적용할 때 그것의 내용적 적실성이 드러남은 분명하다. 그리고 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논박적 대화”에 대한 다른 플라톤 연구자들의 견해에 대한 검토는 본 논문에서 짧게 언급되고 있는 Vlastos(각주 10번, 본문 4.2 참조)와 Robinson, Fred(본문 4.2 참조)의 견해에 대한 논의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해석원칙의 상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논의의 공간이 요구되어진다. 귀중한 의견을 활어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그리고 발표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 DL 3, 5 참조: “후에 그(sc. 플라톤)가 비극경연대회에 참가하려했으나 디오니소스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작품을 태워버렸다...”(논자 번역).
  - 3)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1447b10-14)에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저술들을 “Sôkratikoî logoi”라 칭하고 소프로과 크세나르코스의 “mimos”(笑劇: 친병희 譯) 등과 비교하며 하나의 문학적 형식으로 다룬다.

플라톤 철학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지 않지만,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에 등장시키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 의해 재구성된 소크라테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sup>4)</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들”은 저자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이다. 그것이 초기의 대화편에 속하든지 또는 중, 후기의 대화편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저자 플라톤이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대화”를 통해 하나의 “철학하는 방법”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학의 한 방법인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다수의 대화편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대화”는 통일적인 과정과 구조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궁극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와 같은 극히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 흔히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으로 일컬어지는 초기 대화편에서 대화를 통한 논의가 아포리치적 상황으로 끝난다든지,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대화자인 소크라테스가 계속되는 질문과 함께 상대방의 논지를 논박하는 데에 집중하는 경우, 대화편을 읽어가는 독자들은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 일정한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대화상대자의 논의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완결된 대화 안에서 논의되어지는 내용 중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대화자인 소크라테스의 견해로 또는 그 대

4)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역사성에 대한 현대의 논의는 20세기 초의 스코틀랜드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A. E. Taylor(*Varia Socratica*, Oxford 1911)와 J. Burnet(*Plato's Phaedo*, Oxford 1911)에 의하면 플라톤의 대화편 중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든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역사적 전거로 다룰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20세기 후반 영미권의 영향력 있는 플라톤 연구자인 G. Vlastos가 계승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 대화편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는 O. Gigon (1979, p.42, 52)과 같은 소크라테스연구가들에 의해(Nickel 1979, p.109-111 역시 참조) 반박되었으며 최근에는 플라톤의 작품을 허구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졸저 2005, p.67-68, n.181 참조).

화 안에서 궁극적으로 주장되는 진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은 사실상 플라톤 대화편 이해의 핵심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들의 형식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일련의 도식이나 규칙의 정립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플라톤 대화편 이해의 어려운 한 고지를 넘을 수 있는 일련의 장비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취지로 플라톤 대화편들에서 전개되는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일반적인 과정과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우선 “대화”의 주요한 두요소인 “질문”과 “대답”의 특성 및 기능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과 기능이 “소크라테스적 대화”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예시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종류를 개관하고 이것의 전형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논박적 대화논증술(elenktische Dialektik)”의 특성과 구조를 밝힌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Topica)』 8권에서 다루어지는 대화논증술(dialektikê)의 실천적 규칙들이 적용되어진다.

## 2.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기본적 요소

일반적으로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한컴사전 2004)을 말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이러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이야기의 주고받음으로서의 대화의 부분이 등장한다. 주로 대화편의 서두나 철학적 논의의 중간 또는 대화편의 말미에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대화란 우선 일반적인 의미의 “이야기의 단순한 주고 받음” 즉 고대회랍어로 “서로 주고 받는 말을 통해 가능한 한 편안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의 *homilia*나 *synousia*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dialogos*, 즉 “말 또는 이야기를 관통함”, 즉 논구(論究)를 의미한다.<sup>5)</sup> 이러한 “논구”라는 기본

5) Hirzel 1895, pp.2-5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2006a pp.97-98 참조.

적 특징은 다음에서 논의될 “질문”과 “대답”이라는 “대화”의 기본적인 요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본고의 주제인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밑바탕을 형성한다.

### 2.1. “질문”

현재까지 플라톤의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26편의 대화편 중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는 대화편은 『법률』이 유일한데 여기에서도 등장인물의 하나인 익명의 아테네인을 소크라테스로 간주할 경우<sup>6)</sup>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포함한 플라톤의 모든 저작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소피스트』, 『정치가』, 『크리티아스』, 『티마이오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대화편의 서두에만 등장하며 그 외의 대화편에서는 최소한 대화상대자 그리고 대부분은 주대화자, 즉 대화를 이끄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때 특이한 것은 주대화자 소크라테스가 주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다. 플라톤의 스승이자 철학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하나로 손꼽힐 수 있는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모델로 하고 있는 플라톤 대화편의 주인공인 소크라테스가 일정 대화 안에서 대부분 질문만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화의 기본요소의 하나인 “질문”(eine Frage)이 아직은 하나의 “주장”(eine Behauptung)이 될 수 없음은 이미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G. Frege에 의해 주창된 바 있다. Frege에 의하면 질문문과 주장문은 동일한 명제를 담지할 수 있지만 한 명제를 주장으로서 확정하는 것, 즉 주장문 만이 명제를 하나의 진술로서 확정하는 형식이다.<sup>7)</sup> 이것을 대화의 상황에 적용시키면 대화에 있어 질문자의 질문은 아직은 하나의 명제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상대자의 “대답”에 의해서 하나의 주장문 또는 진술로서 확정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질문에 담지되어 있는 명제는 대답자의 대답에 의해 대답자의 주장으로

6) Aristoteles, 『정치학』 제2편 6장, 예를 들면 1265a 참조.

7) Frege 1986 p.35 참조. 역시 줄고 2006b p.23 참조.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논리학적 관점은 이미 플라톤 자신의 대화편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설정한 가상의 대화상대자에게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내(sc.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프로타고라스가 그것에 대해 대답하였고 나는 단지 묻기만 했습니다.(『프로타고라스』 330e7-331a1)<sup>8)</sup>

그리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자임을 대화편 『알키비아데스 I』는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럼 한번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질문과 대답이 있는 경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소, 질문자이겠소, 대답자이겠소? - 대답자입니다, 오 소크라테스(『알키비아데스 I』 113a)<sup>9)</sup>

이와 같이 플라톤 자신도 질문이 주장일 수 없으며, 대화에서는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볼 때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주로 질문을 하는 소크라테스에게 한 대화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진술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sup>10)</sup> 피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위에서 논의된 대화의 논리는 모든 가능한 질문문의 형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형태의 질문문에 국한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이 질문의 유형은 아리스토텔레스(『변증론』 VIII, 2, 158a14-24)에 의해

---

8) 논자번역. 줄고 2006b p.23, 각주 25 참조.  
9) 논자번역. 이 밖에도 질문이 주장이 될 수 없음에 대한 언명은 대화편 『고르기아스』(466b1-2, 466c3-5)에서도 발견된다(줄고 2006b p.23 각주 24 참조).  
10) 예를 들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을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의 전거로 보려는 G. Vlastos의 관점이 이에 속한다. 줄고 2006b p.10 각주 5 참조.

대화논증술에 적당한 질문형식이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되어지는 질문의 형식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까?” 라든지 “정의로움이란 강자에게 이로운 것입니까?”<sup>11)</sup> 등과 같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의 형태는 질문자가 대화상대자로 하여금 일정한 명제를 주장하거나 논증의 과정에서 일정한 전제나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다. 즉 일정한 대화의 과정을 하나의 대화논증술적 과정으로 일관성있게 인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 대화편이 진행될 때 특별히 대화논증술적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연속적으로 바로 이러한 “예,아니오-질문”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아니오-질문”에서 파생된 형태로서, 특히 나중에 논의하게 될 논박적 대화논증술에 중요한 질문유형의 하나로 선택지질문(Alternativfrage)이 있다. “선택지질문”이란 대답자로 하여금 질문에 가정된(präsupponiert) 명제에 동의할 것인지를 특별한 형태로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견해는 그럼 (이전에) 그에게 있었어.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Enêsan de ge autô hautai hai doxai, ê ou;)(Menon 85c4)”<sup>12)</sup>와 같이 질문의 말미에 주로 “ê ou”(또는 그렇지 않은가)가 등장하는 질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problema라고 한다(Top. I 4, 101b28-34 참조). Problema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예,아니오-질문”인 protasis와는 달리 질문자 자신이 그 질문에서 제공된 선택지 중 어느 편을 결정하는 것을 단지 대답자에게만 위임하려는 경우에 나타난다. 즉 problema의 등장은 본격적인 논박적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에 플라톤 대화편의 대부분의 대화상대자는 이러한 problema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위의 『메논』의 예에서도 대화상대자 메논은 위에 인용한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problema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 없이

11) 플라톤, 『국가』 336b-354b 참조.

12) 괄호내용은 논자의 것이다.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화에서 등장할 수 있는 질문의 형태는 이와 같은 대화논증술적 질문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라든지 “정의로운이란 무엇입니까?”와 같은 “무엇-질문”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대답자의 의견이 아닌 질문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의 형식도 등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이러한 유형의 질문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유형은, Zeyl에게서 유래하며 Zeyl의 주장을 반박하는 Stokes(1986, pp.11-14)에 의해 사용된 질문의 형태인 “tagged question”으로부터 구성해 낼 수 있다. “tagged question”이란 말 그대로 무엇인가가 달려있는 질문, 즉 독일어를 예를 들면 daß 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포함된 질문이다. 예를 들면 “너, 오늘 비가 온다는 말 들었니?(Hast du gehört, dass es heute regnet?)”와 같이 주문장과 부문장으로 구성된 질문의 유형으로서 기본적으로 위에서 논의한 일반적인 형태의 대화논증술적 질문형식, 즉 “예,아니오-질문”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질문”의 경우는 주로 대화논증술적 탐구의 서두나 대화논증의 과정이 잠시 중단되는 경우 또는 진행되는 논의에 대한 정보나 이해에 대한 질문 시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발화되는 경우는 플라톤 대화편의 전형적인 대화의 형식인 대화논증술적 대화가 아니거나 이러한 과정이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tagged question”이 발화되는 경우에는 우선 질문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논증을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는 이러한 질문의 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자가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물론 이러한 질문의 형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질문자의 의견이,

13) 『메논』에서 유명한 텍스트부분인 시중소년에게 기하학을 가르치는 부분이 끝난 직후 소크라테스와 메논이 나누는 대화 중 이 부분(85c4-5)은 시중소년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견해가 그 전에도 시중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하학시간(Geometriestunde)” 중에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메논이 간과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Ebert 2004, p.54 참조).

논증되고 있는 과정의 전제 또는 명제들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정한 대화에서 논의되는 일련의 명제들이 그 대화의 특정한 상황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일종의 “맥락주의(contextualism)”에서 설명될 수 있다. “tagged question”의 유형에 속하며 상기(上記)한 첫 번째 기능을 가진 질문의 형식은 다음에서 1)과 2)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을 가진 질문의 유형, 즉 질문자의 견해가 들어날 수 있는 질문의 형태는 다음에서 3)과 4)에서 예시되어 있다.

- 1) 당신은 ... 라고 생각하지요?(...dokousi soi ...; dokei soi...;)(Phai. 76b8, 76c1, Prot. 339b9)
- 2) 당신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Oukoun legeis...;)(Pol. 333c8)
- 3) 당신은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Oistha oun... hoti...;)(Prot. 339 c1-2)
- 4) 당신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ennoeis hoti...;)(Prot. 339c6)

이와 같은 질문의 유형과 유사한 질문의 형태로서 예를 들면 5) “우리는 그럼... 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Ikanôs oun (...) echomen touto, hoti...)(Phai. 71a9)와 같은 질문의 형식은 질문자가 대답자에게 그 때까지 논의되어진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질문으로서 보통 대답자는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 형식은 더 상세하게 분석, 도식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플라톤 대화편의 “소크라테스적 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 큰 지침이 될 것으로 논자는 믿는다.

## 2.2. “대답”

대화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한 기본적 요소인 “대답”의 경우는 대부분의 절에서 논의한 “질문”의 유형이나 특성에 종속되어 그것의 유형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다만 이때 특이한 것은 대화논증술적 과정에서

대답자가 “예,아니오-질문”을 받았을 경우 근본적으로는 대화논증술적 규칙에 따라 단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해야하지만 자신이 받아들인 명제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전제 및 결론이 본래 대답자가 시작한 출발점과 모순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경우 다양한 대답의 형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sup>14)</sup> “그런 것 같습니다”(Phainetai)(『고르기아스』 476d3,e6)라든지 “내게는 그렇게 보입니다”(Emoige dokei)(『고르기아스』 476b3,6) 또는 “그렇게 보입니다”(Eoiken)(『고르기아스』 475d6, 『화이돈』 71e3)와 같은 대답의 형태는 “분명히 그래요”(Dêlon dê)(『고르기아스』 478e3) “필연적이죠”(Anangkê)(『고르기아스』 475a7,476b10), “물론이죠”(Panu ge)(『고르기아스』 475a11,476c5) 또는 “네”(Nai)(『고르기아스』 475b3), 그리고 “네”(Egôge)(『고르기아스』 474e6)와 같은 일반적인 또는 강한 긍정의 표현과 대조된다. “Phainetai”, “Emoige” 그리고 “Eoiken dokei” 등의 대답은 약한 긍정 또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 사실상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 어쩔 수 없는 긍정을 표현하는 대답의 형식으로서 대답자가 동의하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논의의 논리적 귀결상 어쩔 수 없이 긍정해야하는 경우에 관찰되는 대답의 유형들이다. 이러한 대답의 유형이 관찰되는 경우 독자는 대화상대자, 즉 대답자의 역설적, 나아가 아포리적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답자가 대화논증술적 과정에서 대화논증술적 규칙에 어긋나게 “예,아니오-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대화논증술적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질문자는 다시 대화논증술적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도, 예를 들면 “예,아니오-질문”을 재차 시도하기도 한다.

대답의 유형에 대한 분석과 도식화는 2.1에서 살펴본 질문의 유형과는 달리 본 절에서 논의한 정도로도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14) 위의 예들은 줄고 2005 p.148에서 인용한 것이다.

### 3. 플라톤 대화편에 있어 대화의 종류와 “소크라테스적 대화”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대화의 유형은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적인 비철학적인 대화에서부터 가장 침예하게 논증적인 논박적 대화논증술적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화의 유형이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발견된다. 이중 본고의 주제인 “소크라테스적 대화”에 속하는 것은 우선 소크라테스가 주대화자로 등장하는 대화들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적 대화”에는 통일적인 일련의 논증과정과 규칙들이 발견되는데 이미 언급한 소크라테스가 서두에만 등장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대화편인 『소피스트』, 『정치가』, 『크리티아스』, 『티마이오스』에서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특징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크라테스적 대화”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발견되는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우선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대화”의 종류를 살펴보고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특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대화”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대화는 그 목적과 전개과정에 있어 각각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대화의 유형은 직접적으로 각각의 대화의 유형 안에서 실행되는 각 대화논증술의 영향을 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하며 현대에는 M. Frede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대화논증술에 입각한 이러한 대화유형으로는 교습적(didaktisch) 대화, 훈련적(gymnastisch) 대화, 논박적(elenktisch) 대화를 들 수 있다.

“교습적(didaktisch) 대화”란 말 그대로 어떤 것의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함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대화를 말한다. 대화의 형식상 다소간 대화논증술의 규칙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플라톤 이후의 철학적 대화의 저자들, 예를 들면 키케로의 저작에 등장하는 대화처럼 짧거나 긴 연설을 주고 받는 형태를 취하는 비대화논증술적 형식을 띠기도 한다. 플라

톤의 대화편 중에서는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 311a8-314c2에서 전자의 형태가 관찰되며, 후자의 경우는 주로 비소크라테스적 대화편, 예를 들면 『티마이오스』에서 발견된다. 교습적(didaktisch) 대화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다.

“훈련적(gymnastisch) 대화”란 훈련적 대화논증술을 기초로 하는 플라톤의 대화이다. M. Frede(1992, p.213)에 의하면 “훈련적 대화논증술(gymnastic dialectic)”이란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대화논증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에서 다루어진 대화논증술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훈련 또는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논증술로 형식적인 전개과정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논박적 대화논증술(elenctic dialectic)과 차이가 없다. 즉 4장에서 살펴보게 될 기본적인 대화논증술의 요소와 실행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진행되어 나가는 형식도 논박적 대화논증술과 동일하다. 그러나 Frede에 의하면 두 대화논증술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논박적 대화논증술에 있어서는 대답자가 일정한 명제를 자신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즉 자신의 진정한 견해로 받아들이는 데 반하여, 훈련적 대화논증술에 있어서는 대화상대자가 일정한 명제를 단지 대화논증의 훈련을 위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Frede에 있어 훈련적 대화논증술의 과정에서는 대화의 말미에 아포리적 상황이 야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자신의 견해나 신념이 표출된 명제와 모순이 되는 명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아포리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논박적(elenktisch) 대화”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전형적인 형태로 Frede에 의하면 대화상대자의 견해, 믿음이 포함된 명제가 대화논증술적 과정을 통해 반박, 논박되어 대화상대자가 주로 아포리적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대화이다. 상기(上記)한대로 대화논증술의 진행형식자체는 훈련적 대화에서와 동일하다. 이러한 논박적 대화논증술의 기본 구조와 실행적 규칙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Topica)』 8권에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논박(elenchos)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대의 Vlastos에 의해 간명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음 4장에서는 이러한 논박적 대화논증술의 기본 구조와 실행적 규칙을 『변증론(Topica)』 8권을 중심으로 알아보며 Vlastos의 논박의 구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 4. 논박적 대화논증술의 기본 구조와 실행적 규칙

##### 4.1. 『변증론(Topica)』 8권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8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대화논증술적 구조와 규칙들은 이미 언급한대로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대화의 종류 중 “논박적 대화”의 구조와 실행 규칙을 밝히는 데에 유용하다. 이러한 가정은 우선 그것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Telle와 같은 플라톤 연구가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변증론』 8권에서 다루고 있는 일련의 대화논증술적 구조와 규칙들을 플라톤의 “논박적 대화”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변증론』 8권에서 대화논증술에 대한 논의에 사용되는 예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sup>15)</sup> 『변증론』 VIII 1, 155b30-35에 등장하는 예인 “반대되는 것에 대해 같은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플라톤의 『카르미데스(Charmides)』 170a-171b를 연상시키고, 망각은 지식의 손실이라는 것(*Top.* VIII 2, 157b11-14)은 대화편 『하이돈』 75d에 등장한다. 그리고 “불의를 행함은 불의를 당함보다 낫다”(to adikein beltion tou adikeisthai)는 것(*Top.* VIII 9, 160b21)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고르기아스』 469b-c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 논박되는 명제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예가 보여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변증론』 8권

15) Ebert 1999, p.71 참조 위의 세 가지 예는 여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에서 논의하는 대화논증술적 구조와 규칙의 적합성이 플라톤의 대화편의 예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위의 가정, 즉 『변증론』 8권에서 다루고 있는 일련의 대화논증술적 구조와 규칙들을 플라톤의 “논박적 대화”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변증론』 8권에 나오는 대화논증술적 구조와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4.2. 『변증론(Topica)』 8권에 나타난 논박적 대화논증술의 구조와 규칙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은 개연적 진술에 대한 탐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개연적 진술의 유용성은 1) 훈련, 연습(gymnasia), 2) 함께 이야기함(hai enteuxeis) 그리고 3) 철학적 지식의 영역들(hai kata philosophian epistêmai)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증론』의 8권에서는 변증술가가 “대화”에 있어서 진리 또는 개연적인 진리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논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과 전략을 다룬다.

『변증론』 8권에서 제일 처음 다루어지는 주제는 질문함의 차례와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질문자는 첫째 자신이 공격(epicheirêton)을 시작할 토포스(topos)를 찾아내야 하며(*Top.* VIII 1, 155b4-5 참조), 둘째 제기될 각각의 질문들을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일정한 순서를 정해야 하고, 셋째 상대방에 맞추어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상동 155b5-7 참조)는 것이다. 첫 번째 규칙에서는 대화논증술의 논박적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질문자가 전체 대화논증을 이끌어갈 토포스 즉 관점을 정해야 함이 언명되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한 대화논증에 들어있는 논증의 각 단계가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규칙은 우리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를 읽을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Ebert(1999, p.70)에 의하면 “이러한 담화의 모델로 구성된 (플라톤의) 대화편 해석을 위해서는 그곳에 제기된 질문들을 하나의 큰 전략 안에서의 단계들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각 개별적 질문을 통해 질문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하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규칙은

『변증론』 VIII 1, 155b10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대화상대자에 따라 각각 다른 논증의 차례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규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질문함의 차례와 방식을 제시한 후 다양한 대화논증술의 실행적 규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 중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 특히 “논박적 대화”를 분석할 때 기준이 될 만한 몇 가지 전략적 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sup>16)</sup>

- T1) 대화의 전개는 언제나 대화상대자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Top.* VIII 1, 155b26-28 참조).
- T2) (의도하는) 결론을 숨기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하면 많은 전제를<sup>17)</sup> 이끌어내야 하며 이러한 전제로부터 대화상대자의 명제와 모순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제가 도출되어야 한다(상동 156a7-9 참조).
- T3) (의도하는) 결론을 숨기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의도한) 결론의 도출을 위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전제의 도입이다. 이러한 전제의 도입은 대화상대자로 하여금 본래의 논증목표에 혼란이 오도록 한다 (*Top.* VIII 1, 155b20-24 참조)(Ebert 2004, p.45 참조).
- T4) 대화 상대자의 명제와 모순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필수적인 전제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진 또는 오래전에 다른 전제로부터 도출해 낸다.
- T5) 가능하면 많은 중간논증을 거쳐야 하며(*Top.* VIII 1, 156a7-9 참조), 중간결론은 곧바로가 아니라 중간결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전제가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한번에 도출시켜야 한다(상동 156a11-12 참조).
- T6) 질문자는 논의되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가능하면 불분명하게 보이도록 한다(상동 156b6-7 참조).
- T7) 질문자는 대화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16)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 규칙들의 도식화는 줄저 2005, p.159 참조.

17) ‘전제’는 *protaseis*의 번역어이며 여기에서는 대답자에 의해 주장으로 확정되어진 질문의 내용, 즉 명제를 말한다. Ebert 2004b, p.45 참조.

즉 대답자가 자신의 명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황당한 결론을 주장하도록 대화를 이끈다(*Top. VIII 4, 159a18-20*).

이와 같은 『변증론』의 규칙들을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에 적용시켜 보면 우선 T1)의 규칙은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적 요소의 하나인 등장인물의 설정과 관계가 있다. 어떤 등장인물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상대자로 나오느냐에 따라 해당하는 대화의 기본적 특징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와 젊은 청년 히포크라테스의 대화를 본 대화인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대화와 비교하면 이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전자의 대화는 3장에서 다룬 “교습적 대화”의 일종으로 논박(*elenchos*)의 특성이 전혀 없다. 후자의 대화는 전형적인 “논박적 대화”이며 『변증론』 8권에서 논의하는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소크라테스적 대화”이다.

T2)-T7)의 규칙에서는 “논박적 대화논증술”의 구조와 전략이 상세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E1) 질문의 긍정을 통한 대답자의 명제 p 확정
- E2) 명제 p에서 도출되는 또는 도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명제들의 나열
- E3) 이러한 새로운 명제들을 전제로 하는 중간 논증 형성
- E3') 또는 명제 p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전제 도입
- E4) E3) 또는 E3')로부터 -p(not p) 또는 대답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새로운 결론 도출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8권을 기초로 한 논박의 구조는 현대의 플라톤 연구가 Vlastos의 도식과 비교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이 두 연구가의 도식을 비교하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본질적인 면을 밝힐 수 있다. 우선 Vlastos(1983, p.39)가 제시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논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V1) 대화상대자는 소크라테스가 거짓이라 간주하며 논박하려고 하는 명제  $p$ 를 주장한다.
- V2) 소크라테스는 대화상대자로 하여금  $q$  나  $r$ 과 같은 전제가 참임을 동의하게 한다. 계속되는 대화의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q$ 와  $r$ 이 참임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q$ 와  $r$ 로부터 논증한다.
- V3) 소크라테스는  $q$ 와  $r$ 이  $\neg p$ 를 포함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대화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 V4) 소크라테스는  $\neg p$ 가 참이라고 증명되었고 이로써  $p$ 가 거짓임을 주장한다.

『변증론』 8권을 기초로 한 논박의 구조와 Vlastos의 도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문자 즉 소크라테스가 일정한 명제를 주장하거나, 그 명제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2.1에서 논의한 것처럼 대화의 논리학에 있어 “질문”의 독특한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Vlastos의 주장은 고려의 여지가 많다. 물론 일정한 형식 하에서의 질문, 예를 들면 2.1에서 논한 “tagged question”의 경우나, “대화논증술(dialektikê)”의 과정에서 일탈되어 있는 경우의 질문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대화편의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 대화편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전형적인 형태인 “논박적 대화”에서는 질문자인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읽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상대자 즉 대답자의 명제를 검토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논증과정에 대한 논리적 검토가 그 관건이 된다. 플라톤 대화편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에 있어 “논박(elenchos)”의 핵심은 소크라테스의 명제의 제기나 변호가 아니라 대화상대자에 의해 제기된 주장들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논박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변증론』에서의 규칙인 위의 T2)-T7)의 항목은 크게 보면 “(도출될) 결론의 은폐”를 목적으로 한다. 논증과정 자체에서도 상대에 대한 공격(epicheirêma)이 특성이기 때문에 대화상대자에 대한 “논박”의 비윤리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박적 대화에서 가능한 비윤리성의 문제는 논박

의 “인물적 특성”을 배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논박의 인물적 특성(der persönliche Charakter des Elenchos)” (Stemmer 1992, p.102)이란 논박의 대상이 “사람”(인격 Person)이라는 것이다. Robinson(1953), Frede(1992)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논박(Elenchos)이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논쟁술(Eristik)과 구분될 수 있으려면 논의되어지고 있는 명제들이 대화참여자들에 의해 참인 명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간주된 명제가 논박될 때 이 명제를 참으로 인정하는, 즉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대화상대자는 자신의 인격이 훼손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입장은 위에서 제기된 논박의 윤리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논박의 대상은 어떤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검토하고자하는 명제이며, 그 명제를 개인이 자신의 신념으로 간주해야 함은 논박적 대화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아님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sup>18)</sup> 그리고 위의 3장에서 언급한 “훈련적 대화”와 “논박적 대화”의 형식의 동일성에 주목하여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본질적 특성을 대화 논증술의 실험이라고 보면 이러한 논박의 윤리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관찰되는 소크라테스적 논박은 대화상대자가 승인한 명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sup>19)</sup> 그리고 이러한 “논박”의 특성은 ‘논박하다’ 또는 ‘반박하다’의 고대희랍어인 elenchein의 어법에서도 발견된다. 원래 ‘논박하다’ 또는 ‘반박하다’의 뜻 외에도 elenchein은 ‘탐구하다’ 또는 ‘검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elenchein의 용례를 보면 『리시스』 211b7과 222d7, 『대히피아스』 288a2,3, b1, 289e4, 『테아이테토스』 157e5, 161e7, 162a4, 165e1, 169c6에서는 ‘논박하다, 반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카르미테스』 166c8의 두 번째 elenchein, 『프로타고라스』 331d1, c6, e1-2에서는 ‘탐구

18) Stemmer(1992, p.102)에 의하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로 W. G. Ryle을 들 수 있다고 한다.

19) Stemmer 1992, p.102 참조.

하다’ 또는 ‘검토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증론』 8권에서의 논박의 구조와 Vlastos의 논박의 구조의 두 번째 차이점은 질문 또는 질문자의 증명에 대한 대화상대자, 즉 대답자의 동의를 명시하는 것이다. Vlastos에 있어서는 V3)의 항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화상대자의 주어진 명제에 대한 동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변증론』 8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변증론』에서 정의되고 있는 대화논증술적 질문의 특성으로부터 유추하여 위의 E1)의 항목의 보충이 가능하다. 즉 “예,아니오-질문”을 통해 대답자가 일련의 명제나 전제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질문되어진 내용을 대답자의 명제로 확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변증술적 과정에 있어서 대답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간략히 다룰 *Top. VIII 4, 159a20*과 *159a22-24*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이 항목이 “대화논증술적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오류추론의 종류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T8) 대답자는 (자신의 명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황당하고 역설적인 결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제자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한다(*Top. VIII 4, 159a20* 참조). 왜냐하면 거짓인 명제를 받아들여서 생기는 오류와 제기된 명제에 적절하지 않게 변호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상동 *159a22-24* 참조).

T8)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류추론의 종류는 첫째 거짓인 전제를 사용하여 추론함으로써 생긴 비형식적 오류와 둘째 추론의 형식자체가 잘못되어 생겨나는 형식적 오류가 그것이다. 이러한 오류추론에 대한 언급은 오류가 논박적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암시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변증론』 8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박적 대화의 구조와 Vlastos가 도식화시킨 플라톤 대화편에 있어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논박의 구조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제 논박

적 대화의 이러한 두 구조를 종합, 절충하여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적 대화”를 읽어 나갈 때 일반적인 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D1) 대답을 통한 대화상대자의 명제 확정
- D2) 새로운 전제의 도입
- D3) D2)의 전제로부터 중간결론 도출
- D4) D3)의 중간결론에 대한 대답자의 동의
- D5) D1)에서 제기된 대답자의 명제와 D4)의 중간결론을 전제로 하는 추론의 결론 사이의 모순성 제시.

논박의 구조에 대한 이러한 극히 추상적인 도식은 물론 위에서 논의한 『변증론』 8권의 규칙들 그리고 플라톤 대화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질문의 유형과 이에 따르는 대답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그 쓰임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나오는 말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어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분석과 이해는 플라톤 대화편의 본질적인 면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다. “대화”라는 특별한 문학적 장르가, 역사적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물려주었을 “대화논증술”과 결합하면서 플라톤의 독특한 철학적 방법론이 탄생하였고, 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적 대화”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소크라테스적 대화”란 우선 대화의 기본요소인 질문자로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대화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대화논증술(dialektikê)”과 “논박(elenchos)”의 요소가 특징적이며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기본적 구조와 규칙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8권에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위의 2.1에서 상론한 것처럼 대화의 기본요소인 질문은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적 대화”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소크라테스의 명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대답하고 있는 대화상대자의 명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에 다양한 질문의 유형과 대답을 주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질문자의 의견이나 대답자의 상황이 각 질문과 대답의 유형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대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즉 교습적, 훈련적, 논박적 대화로 나눌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적 대화”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그 중 논박의 요소가 특징적인 논박적 대화가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훈련적 대화도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사용되는 대화논증술(dialektikê)의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훈련적 대화와 논박적 대화는 대화의 논리적 구조상 차이가 없다. 다만 논박적 대화에서는 논박의 윤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4.2에서 논의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논박적 특징을 방법론적, 즉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논박에 있어 “인물적 특성”을 제외시킬 수 있고 이것으로써 논박의 비윤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끝으로 논박적 대화의 일반적 구조를 보면, 대답자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논리적 과정이 먼저 새로운 전제의 도입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전제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대답자의 원래의 주장과 모순의 관계에 있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크라테스적 대화”가 본고에서 논의한 도식들을 가지고 모두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논문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대화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선이해적 도구를 예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플라톤 대화편에 있어서 “소크라테스적 대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이러한 예비적 탐구를 더욱 확장시키고 구체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번역서, 해설서

플라톤 대화편의 희랍어 원전은

Burnet, John (Hg.). 1900-1907. *Platonis Opera*. 5 Bde. Oxford 를 따름.

Bekker, Immanuel (Hg.). 1831. *Aristotelis Opera*. 2 Bde. Berlin.

Ebert, Th. (übers. u. kom.). 2004a. *Platon: Phaidon*. Platon Werke, Bd. I 4. Göttingen.

Fuhrmann, M. (übers.). 1982. *Aristoteles: Poetik*. Stuttgart.

Giannantoni, G. (Hg.). 1990. *Socratis et Socraticorum reliquiae*. Vol. 1, 2.

Jürß, F. (Hg. u. übers.). 1998. *Diogenes Laertios: Leben und Lehre der Philosophen*.

Krautz, H. W. (übers.). 1987. *Platon: Protagoras*. Stuttgart.

Manuwald, B. (übers. u. kom.). 1999. *Platon: Protagoras*. Göttingen.

Marcovich, M. (Hg.). [DL]. *Diogenis Laertii Vitae philosophorum*. Vol. 1. Stuttgart, Leipzig. 1999.

Reich, K. (Hg.). 1967. *Diogenes Laertius: Leben und Meinungen berühmter Philosophen*. Hamburg.

Ross, W.D. (Hg.). [Soph. El.]. 1958. *Aristotelis Topica et Sophistici elenchi*. Oxford.

Zekl, H. G. (Hg.). [Top.]. 1997. *Topik, Über die sophistischen Widerlegungsschlüsse*. Organon Bd.1. Griechisch-Deutsch. Hamburg.

### 2. 이차 문헌

김 진 2006a “플라톤의 수사학”. 『수사학』 제4집. pp.90-113.

\_\_\_\_\_ 2006b “플라톤,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9, 20세기 플라톤 연구 동향을 출발점으로”. 『철학탐구』 19집. pp.5-35.

- Blössner, N. 1997. *Dialogform und Argument. Studien zu Platons Politeia*. Mainz, Stuttgart.
- Ebert, Th. 1999. Der fragende Sokrates, Überlegungen zur Interpretation platonischer Dialoge am Beispiel des *Menon*. In: *Philosophiegeschichte und logische Analyse*. 2. pp.67-85.
- \_\_\_\_\_ 2004b. Der fragende Sokrates, Überlegungen zur Interpretation platonischer Dialoge am Beispiel des *Menon*. In: *Gesammelte Aufsätze*. Bd. II: *Zur Philosophie und ihrer Geschichte*. Paderborn. pp.41-64.
- Frede, M. 1992. Plato's arguments and the dialogue form.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Supplementary Vol.: *Methods of interpreting Plato and his dialogues*. Hrsg. v. J. C. Klagge/ N. D. Smith. Oxford. pp.201-219.
- Frege, G. 1986. *Logische Untersuchungen*. Hrsg. v. G. Patzig. Göttingen.
- Gigon, O. 1979 [1947]. *Sokrates: Sein Bild in Dichtung und Geschichte*. Bern, München.
- Hirzel, R. 1895. *Der Dialog. Ein literarhistorischer Versuch*. Erster Teil. Leipzig.
- Kahn, C. H. 1996. *Plato and the Socratic dialogue. The philosophical use of a literary form*. Cambridge.
- Kim, Jin. 2005. *Poiesis als Logos. Eine historische und hermeneutische Untersuchung zur Form der platonischen Dialoge*. Aachen.
- Nickel, R. 1979. *Xenophon*. Darmstadt.
- Robinson, R. 1953 [1941]. *Plato's earlier Dialectic*. Oxford.
- Stemmer, P. 1992. *Platons Dialektik. Die frühen und mittleren Dialoge*. Berlin, New York.
- Stokes, M. C. 1986. *Plato's Socratic conversations. Drama and dialectic in three dialogues*. London.
- Telle, H. 1975. *Formen der Beweisführung in den platonischen Frühdialogen*. Bonn.

철학탐구 제21집

Vlastos, G. 1972. The unity of the virtues in the *Protagoras* . In: *The review of metaphysics*. 25. pp.415-458.

\_\_\_\_\_ 1983. The Socratic Elenchus.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Vol.1. pp.27-58.

## Die methodische Struktur der "sokratischen Dialoge" in Platons Dialogen

Kim, Jin

Platon hat Dialoge geschrieben. Abgesehen von einigen Briefen hat Platon seine Werke nur in Dialogform abgefasst. Diese Tatsache besagt, dass die Form der Dialoge bei Platon eine wichtige Rolle zum Verständnis seiner Philosophie spielt. Die Dialogform, die sicherlich auf der philosophischen Methode des Sokrates beruht, ist bei Platon sowohl eine literarische Gattung als auch eine philosophische Methode, die sich in seinen Dialogen häufig findet.

Die vorsteh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n sokratischen Dialogen", die m. E. zum Verständnis der Philosophie Platons eine zentrale Rolle spielt. Sokrates ist die Figur, die in allen Dialogen Platons auftritt. Seine typische philosophische Methode, die in den platonischen Dialogen sehr charakteristisch verwendet wurde, bestimmt einen wichtigen Moment des Dialogs. Um eine gemeinsame und einheitliche Struktur "der sokratischen Dialoge" zu konstituieren, befasst sich die Arbeit zuerst mit den Formen der Fragen und Antworten, deren Charaktere zum Verständnis einer Argumentation in den Dialogen eine wichtige Rolle spielen. Der Hauptteil der Arbeit bietet die Möglichkeit, die drei Arten der sokratischen Dialoge zu überblicken. Dann untersucht er die elenktischen Dialoge, die die typische Art der Dialoge Platons zu nennen sind. Das achte Buch in der aristotelischen *Topik* wurde herangezogen, um die Vorgänge der sokratischen Dialoge zu analysieren. Im Vergleich zu der Struktur des Elenchos, die Vlastos, ein moderner Platoninterpret, vorgeschlagen hat, sind die Regeln und die Formulierung eines elenktischen Prozesses in der *Topik* adäquat für die Interpretation der sokratischen Dialoge Platons. Am Ende

철학탐구 제21집

der Arbeit wurde ein neuer Vorschlag für die Struktur der sokratischen Dialoge gegeben.

Key Words: Platon, Dialektik, Dialektikê, Sokrates, Aristoteles, Topica, Dialog, Elenchos

김 진 e-mail : jinkim16@hotmail.com